

중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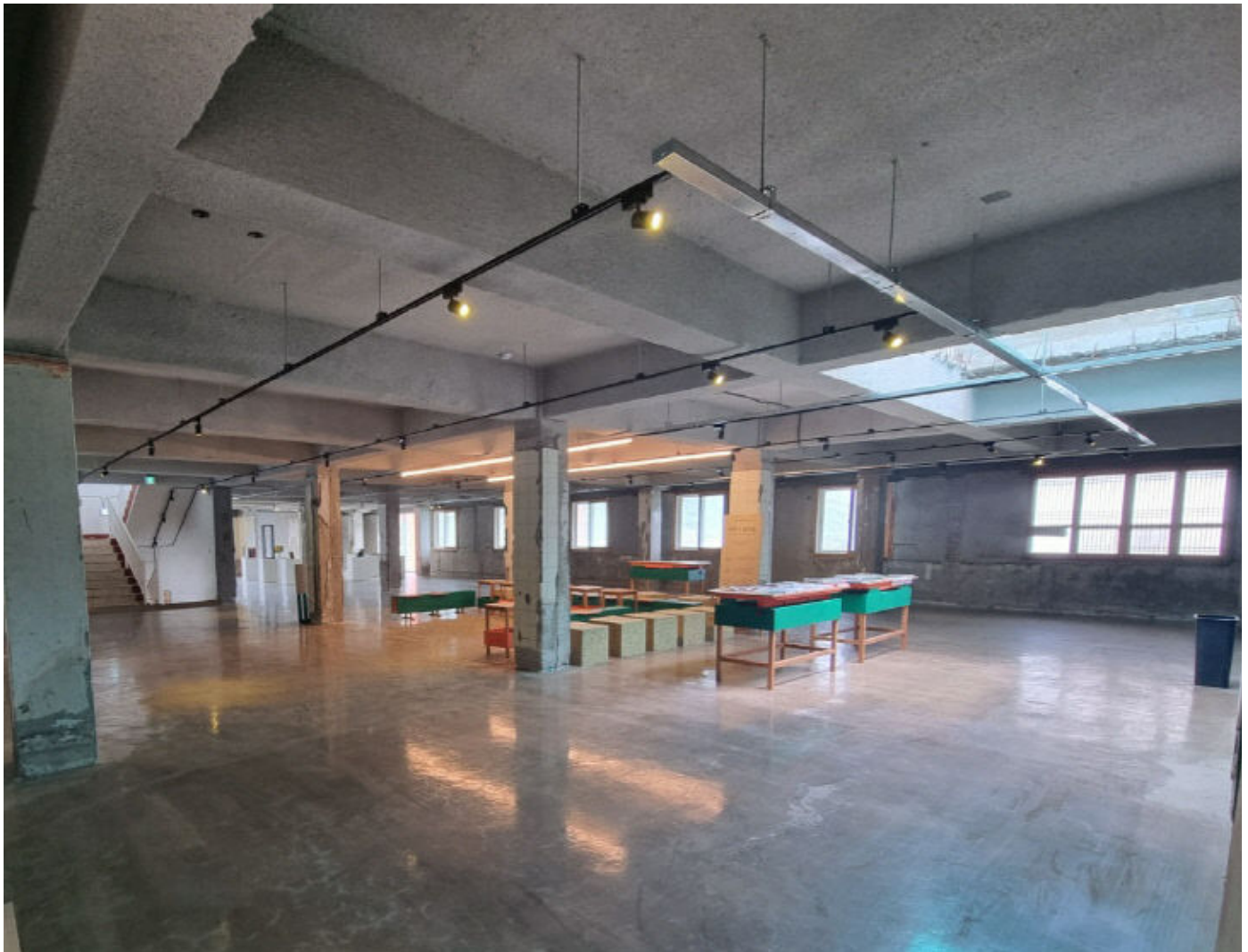
1951년 창간 中 都 日 報 joongdo.co.kr

남해군 남해각 대관사업 9월부터 시범 운영

내년 1월부터 본격 개시 예정

김정식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2-08-31 10:43



남해군, 남해각 전시회장 전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은 남해각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시이벤트가 추진된다고 31일 밝혔다.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에 따르면 남해각의 새로운 콘텐츠를 확보하고 2층 공간 활성화를 위해 남해각 대관 사업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작년 2월 재생사업을 통해 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남해각'을 생동감 넘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널리 알리고자 기획된 이번 사업은 9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남해각 2층 공간은 연중 상시 대관이 가능한 공간으로 약 100평 남짓 '기획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다양한 행사 운영을 위한 150인치 빔스크린, 빔프로젝터, 마이크, 음향앰프, 작품 전시대, 이젤 등 다양한 집기들이 마련돼 있어 이를 활용해 초청 전시와 여러 이색 회의 등 흥미로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관 신청 방법은 남해군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의 대관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남해각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관 승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한편 남해각 2층 대관과 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관광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프린트

취소